



중앙 정치권 '4·3의 완전한 해결'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회법 개정위원장 불참 비판
이재명 "국민의힘은 4·3 편취 인사 공천 취소해야"
윤재옥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각계의 정치인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제주4·3의 해결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추념식 불참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명목의 국가폭력도 허용될 수 없으며 4·3 학살의 후에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편취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가의 존재 이유 중 제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폭

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4·3 편취에 대한 질의에 "4·3 학살의 후에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편취하고 있다"며 "4·3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4·3을 편취하는 인사들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마땅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공천장을 쥐어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4·3추념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4·3 편취 인사들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전체가 4·3의 회복과 치유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4·3 관련 기록물들이 세계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추념식 불참과 관련 "총리께서 참석하셨고 저와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며 "민생토론회가 제주에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그때 오시면 4·3을 비롯해 제주도의 여러 발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별도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념식에 함께 참석한 제주 출신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4·3추념식인 만큼 추념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고 있고 4·3에 별도의 정치적 메시지는 불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당의 선대위원장들도 4·3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제주에 내려와 4·3 유족회와 간담회를 통해 4·3의 제대로 된 역사적 추념을 위한 후속 입법을 약속했다"며 "4·3항쟁에 관한 정명을 위한 작업이 법적으로 필요하고 5·18특별법처럼 역사 부정죄와 관련해 4·3특별법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은 "70여 년이 지났지만 많은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가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법과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제주도의 봄에 더 큰 행복과 희망, 웃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새로운미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에 대해 개혁신당은 강력 규탄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거 유세에서 상대 당에게 저주의 말을 늘어놓을 시간에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추모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다섯살에 아버지를 잃은 김옥자씨(앞줄 왼쪽)가 76년 만에 인공지능 기술로 재현한 아버지 영상을 보고 손녀(앞줄 오른쪽)와 눈물 흘리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옥자야, 아버지 하영 기다렸지?"

김옥자씨, 76년 만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아버지 만나

고두심씨, 유족 사연 소개
가수 인순이 '아버지' 불러

3일 아침부터 짙은 안개와 함께 제주4·3평화공원에 내리던 비는 오전 10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과 함께 거깃 물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주4·3평화공원 광장에서 열린 이날 추념식은 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됐다.

추념식은 식전행사와 분행사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 8시 40분 불교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의 종교의례를 시작으로 제주어와 김 지원 학생의 추념시 낭송, 제주도립 제주예술단과 시립합창단의 합동공연으로 추념식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바리톤 김동규씨와 소프라노 한아름씨가 애국가를 제창하는 동안에는 4·3유족자 영상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염원을 담은 영상이 기념식장에 송출됐다.

본 행사에서 이어진 유족 사연은 배우 고두심씨가 다섯 살에 4·3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김옥자 어르신

의 사연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김옥자 어르신의 손녀인 한은빈 학생이 편지 낭독으로 가족사를 소개하며 "무엇보다 할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 이제는 아버지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는 망각"이라는 사연을 전했다.

이어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김 어르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아버지 고 병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추념식장에 송출되며 김 어르신은 76년 만에 아버지와 마주했다.

영상 속 아버지는 "옥자야, 아버지다. 하영 기다렸지?"라며 "이리와라 우리 딸,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안아보자"라고 인사를 건넸다.

가수 인순이씨는 '아버지'라는 곡을 열창하며 김옥자 어르신과 수많은 유족들에게 위로로 전했으며 김옥자 어르신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고두심씨는 "시렸던 겨울을 이겨낸 따뜻한 4·3의 봄바람이 우리 모두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념식을 지켜본 유족과 도민들은 희생자들의 추모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추념식 이후 차례차례 재단에 올라 헌화하며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새겼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3일 제주4·3 제76주년 추념식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여야, 일제히 4·3 추모 메시지

여야는 3일 제주4·3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일제히 내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 일 메시지를 통해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희생된 4·3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나,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

구하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주4·3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고,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해왔다. 앞으로도 제주 4·3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으로 제

주4·3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55년 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공식 사과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추진하며 끊어졌던 실타래를 연결했다"며 "민주당은 진실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동영 선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제주 4·3항쟁은 국가 폭력에 맞선 저항과 아픔의

역사였다. 제주4·3은 이제 분명한 정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겸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공직생활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4·3의 비극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화해와 평화를 추구했던 우리의 노력이 젊은 세대에도 잘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4일

번호	내용
1. 사업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덕천리마을부지 덕천솔라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128-1 외 4필지 (1128-2, 1128-3, 1128-4, 1128-5) ■ 면적: 약 366,390㎡ [110,832.97평] - 총 763,737㎡의 2분의1 ■ 설비 용량: 24,795 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3월 ■ 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주식회사 덕천솔라에너지 ■ 최대주주: 하이닉스(주)성장양분사업부 투자신탁(전문) (집합투자업자: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7일간 (2024년 04월 04일 - 04월 10일) ■ 의견 제출방법: 제출방식으로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 우편 주소: (우: 63331)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북1길 8 주식회사 덕천솔라에너지 담당자 앞 ✓ 연락처: 010-4900-8739 ✓ E-mail: kimho7291@daum.net ✓ Fax: 0504-369-8739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4일

번호	내용
1. 사업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덕천리마을부지 변영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128-1 외 4필지 (1128-2, 1128-3, 1128-4, 1128-5) ■ 면적: 약 366,390㎡ [110,832.97평] - 총 763,737㎡의 2분의1 ■ 설비 용량: 24,795 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3월 ■ 운영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동 있을 수 있음.
2.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주식회사 변영에너지 ■ 최대주주: 주식회사 제주위드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7일간 (2024년 04월 04일 - 04월 10일) ■ 의견 제출방법: 제출방식으로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 ✓ 우편 주소: (우: 63331)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북1길 8 주식회사 변영에너지 담당자 앞 ✓ 연락처: 010-2920-7291 ✓ E-mail: kimho7291@daum.net ✓ Fax: 0504-369-8739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